

상속세 개편논의와 조커 카드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세계에선 높은 상속세율이 부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피, 기업승계 폐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최고세율이 1999년에 45%에서 50%로 개정된 후 25년간 유지되고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방식으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주주 할증 적용 시엔 최고 60%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우리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일본이 55%로 제일 높고, 한국이 두 번째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45%의 프랑스, 40%의 영국과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이 15% 수준임을 생각하면, 우리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각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볼 때 실효세율 측면에서 여러 공제제도나 소득세 등과의 연계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국가 간 단순 비교

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이 높은 과세 표준적용으로 과세부담이 과중하고, OECD 국가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그런데, 상속세 완화는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상속세 완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연되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상속세 완화 논의의 첫 단추는 윤 대통령이 꿰었다.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한 개인투자자가 상속세의 과도한 부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현행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며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최근 여야 의원의 대표적인 발언을 보자. 여당인 국민의힘 재정·세제특위 위원장인 송인석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한 토론회에서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역시 6월 20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인적공제액을 높이고, 최고 50%인 상속세를 낮추고, 주주상속세 할증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상속세 개

편 방향을 밝혔다.

KOSIS의 2022년 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수는 1만9506명이고, 이들의 상속자산액은 56.5조원이다. 이 중 상속세율 50% 적용 대상인 과세표준 30억 이상인 피상속인수는 1275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여야나 정부가 상속세 개편 목적으로 중산층의 부담경감을 언급하는데, 과연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벌어지는 추세를 살펴보자.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2020년 9.59에서 2022년 9.92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부의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 우리의 상속세 완화는 작금 해외에서 초부자에 대한 부유세 부과 논의의 상황과 엮바자 처럼 보인다. 다만, 대기업집단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지방 소멸이 진행되는 현실에서 일거양득(一舉兩得)이 될 상속세 개편의 조커 카드가 있다. 그건 다름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독일 처럼 지역별로 대기업 1~2개가 존재하는 현상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국회의원의 질의는 '민생을' 향해야 한다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국회 정부위원회가 지난 7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했다.

당시 정부위의 최대 현안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지난 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당시 119응급의료 헬기 이송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한 것이었다.

여야의 질문은 유철한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 쏟아졌다. 하나,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나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에게만 향했다.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질문했다. 한 위원장이 "민사적 채무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쿠팡이 위메프를 인수할 때 조건 없이 승인해줬다"며 "무리한 몸집 키우기, 재무상황에 대한 이야기 있었음에도 경쟁 촉진을 예상한다는 이유로 조건 없이 승인해 소비자 피해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는 마무리됐다. 김건희 여사 이슈로 공방을 벌이던 중 갑자기 나온 티메프 사태 질의에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여사 이슈를 다뤄야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며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의 오후 질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이슈로 향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 것을 두고 자영업자 입장에서선 수수료가 44% 오른 것이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재무상황이 나쁘지 않음에도 중개수수료를 올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해당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티메프 사태는 당장 삶이 달린 이슈다. 미정산된 판매대금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당장 휴가철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티몬·위메프 본사를 찾아야 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겠지만,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 민생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챙기고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도 국회의원 질의의 중요한 역할이다. /pth285@

오늘의 운세 8월 2일 (금 8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오직 성공으로 측정. 48년생 순풍에 돛대배가 돛이 순조로운 하루. 60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노하게 한다. 72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배회하는 격. 84년생 새 소식을 듣고 문서에서 황재수이다.
- 소** 37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49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된다. 61년생 옷지 않으려면 장사를 접어라. 73년생 혐의해라 독단적인 일처리 발목을 잡는다. 85년생 이상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돈에서 출발.
- 로랑이** 38년생 동트기 직전 원래 가장 어두운 밤이다. 50년생 기죽지 말고 가슴을 펴고 살자. 62년생 당장 고쳐야 할 것을 방치해서 곤란을 겪는다. 74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해보라. 86년생 어려움으로 조심.
- 토끼** 39년생 고인 물은 흘러보내야 썩지 않는다. 51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63년생 결혼은 돌이 하지만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다. 75년생 오늘은 연인과 데이트에 즐거움이. 87년생 하나를 얻으려고 셋을 포기하는 격.
- 용** 40년생 나의 것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52년생 거짓말도 변명거리가 필요하다. 64년생 조심하라 친척과의 대화가 근심을 가져온다. 7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이 힘이 빛을 발휘한다. 88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다.
- 뱀** 41년생 향기 없는 꽃에 속지 마라. 53년생 잃은 것이 없으니 두려움 필요가 없다. 65년생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새 직장에서 힘낸다. 77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자. 89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 말** 42년생 뜻대로 일이 풀리니 교만해질까 걱정이야. 54년생 오늘은 앞던 이가 빠진 것처럼 일이 풀린다. 66년생 휴식이 없는 인생이 서글프다. 78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에 차자. 90년생 헛된 욕심으로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 양** 43년생 머릿속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55년생 노후를 위해 적금을 하나 들어보자. 67년생 새 소식을 문전에서 바로 온다. 79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신의 주변부터 살펴보도록. 91년생 물이 들어오니 노를 힘껏 저어라.
- 원숭이** 44년생 하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인다. 56년생 문을 두드려라 열리리라. 68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80년생 이력서 내는 장소는 정동 쪽만 피하고 움직여라. 92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할 것.
- 닭** 45년생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용기로 변한다. 57년생 포기를 하니 마음을 비우니 편하다. 69년생 이성 간에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81년생 봄날이 항상 맑기만 하지 않다. 93년생 이룰 수도 저룰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되니.
- 개** 46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 58년생 사고(四苦)는 생고 노고 병고 사고(死苦)이다. 70년생 사공(四窮)은 환(鰥)과(寡)고(孤)독(獨)이다. 82년생 공부로 미래를 관망할 수 있다. 94년생 세상이 자신에게만 나쁘게 한 일은 없다.
- 돼지** 47년생 버틸 수 있으니 아직 희망은 있다. 59년생 힘든 일은 주변의 도움을 받자. 71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83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배로 나감. 95년생 세월이 약이라 했으니 오늘 일은 시간을 보내야만.



김상회의四季 불명과 명리학

캠핑 열풍이 뜨겁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도 끄고 청정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의 매력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캠핑에는 필수코스가 있다. 먹는 것도 놀이도 아닌 불명이라는데 불명은 불을 피워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걸 말한다. 불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캠핑장이다. 칙흑 같은 밤에 피어오르는 불을 보고 있으면 세상 근심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불명에 빠져 캠핑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 캠핑 가서 불명을 하고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 인생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연이어 쏟아지는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해를 입히는 독소가 되어 몸 곳곳에 쌓인다. 독소의 해악을 이기지 못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은 갖은 상처를 입고 너털너털해진다. 때때로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가 필요한 건 그런 해악 때문이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면 정신이 번쩍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안 풀리는 일의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풀리게 될 것인지를 잠시라도 생각을 짚어보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도 사색해보라.

캠핑장에서 즐겁게 놀다 만 오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현재의 근심을 풀어주고 미래의 계획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보라. 근심이 사라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따라서 마음도 편해지고 향상되는 운세가 따라올 것이다. 자신의 팔자가 과거요 현재요 미래이니 현재 세상살이의 스트레스를 풀며 미래의 발전을 가져오기 바란다. 팔자에서는 일이 잘 풀리면 겸손을 일러줄 것이며 풀리지 않을 때는 자신의 과거 현재를 점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 될 것이다. 그 학문이 명리학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증가시켜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증가시켜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8 | 9 | 6 | 1 | 8 | 2 | 7 | 9 | 4 |
| 8 | 1 | 9 | 7 | 4 | 9 | 2 | 8 | 6 |
| 7 | 2 | 4 | 8 | 6 | 9 | 8 | 9 | 1 |
| 6 | 8 | 8 | 2 | 9 | 1 | 4 | 7 | 9 |
| 9 | 7 | 2 | 4 | 9 | 8 | 6 | 1 | 8 |
| 9 | 4 | 1 | 6 | 7 | 8 | 8 | 2 | 9 |
| 1 | 8 | 4 | 9 | 2 | 6 | 9 | 4 | 8 |
| 7 | 9 | 9 | 8 | 8 | 7 | 1 | 6 | 2 |
| 2 | 6 | 8 | 9 | 1 | 7 | 4 | 5 | 4 |

| | | | | | | | | |
|---|---|---|---|---|---|---|---|---|
| 9 | 2 | 4 | 8 | 6 | 9 | 1 | 7 | 8 |
| 8 | 7 | 9 | 9 | 1 | 8 | 2 | 6 | 4 |
| 1 | 8 | 6 | 7 | 4 | 2 | 8 | 9 | 9 |
| 4 | 9 | 2 | 8 | 7 | 1 | 9 | 8 | 6 |
| 8 | 9 | 1 | 2 | 9 | 6 | 7 | 2 | 9 |
| 9 | 6 | 7 | 2 | 9 | 8 | 8 | 4 | 1 |
| 6 | 9 | 9 | 1 | 2 | 7 | 4 | 8 | 8 |
| 2 | 4 | 8 | 9 | 8 | 6 | 1 | 4 | 8 |
| 7 | 1 | 8 | 6 | 8 | 4 | 9 | 9 | 2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86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90호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